

韓國學報

第五十二輯

K312.06

0

1988, 가 을

一志社

編輯委員(非常任)

金 允 植

愼 鏞 廈

韓 永 愚

(가나다順)

韓國學報・第五十二輯(제14권 제13호)・季刊

1988年 9月 10日 印刷

1988年 9月 15日 發行

발행결 金 聖 哉
편집인 편집인

인쇄인 金 鍾 鳴

발행처 一 志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中學洞 46-1

전화 732) 9320, 733) 0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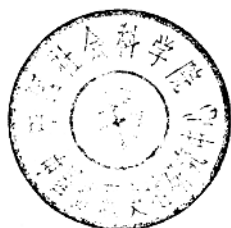
<등록 1975. 9. 1. 제 마-389호>

印刷: 新星印刷社 代碼 010041-31-500988번 값 3,500 원

(本誌는 雜誌倫理實踐綱領을 준수한다.)

韓國學報

第 五十二 輯



一 志 社

W-121/01
古朝鮮과 三韓의 관계

2220/01 尹 乃 鉉*

- (차 례)
- | | |
|-----------------|----------------|
| 1. 序 論 | 4. 辰國과 三韓의 관계 |
| 2. 辰國의 위치 | 5. 結 論 |
| 3. 古朝鮮과 辰國의 관계 | |

1. 序 論

그간 三韓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연구 내용은 대체로 三韓의 위치와 사회성격 究明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가 한국 고대사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三韓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될 경우 三韓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깊어질 수 있겠지만 한국사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전의 사회와 三韓의 관계, 한국 상고사의 중핵을 이루는 古朝鮮과 三韓의 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고는 한국사의 출발점을 체계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래에 三韓의 이동설을 내놓아 그러한 시도를 한 논문¹⁾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필자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간 필자는 古朝鮮·箕子·衛滿朝鮮·漢四郡 등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묶어 『韓國古代史新論』²⁾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필자의 작업은 한국 고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었

* 윤 내현 : 韓國大 史學科 教授, 主著——『韓國古代史新論』, 『商周史』.

1)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第26號, 1975, pp. 1~66.

2)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6.

다. 그러나 한국 고대사를 바로잡는 작업은 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三韓·列國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韓國古代史新論』을 발표한 후 필자는 독자들로부터 三韓에 관한 질문과 三韓에 관한 논문을 빨리 발표해 달라는 독촉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간 필자는 잡무에 얽매여 이 문제에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제야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三韓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필자는 한국 상고사의 중심인 古朝鮮과 三韓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점이 밝혀져야만 한민족의 형성과정이나 한국사의 출발점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三韓에 관한 문헌 사료는 그간 충분히 소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고대사회의 발전과정이나 그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료의 해석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三韓을 古朝鮮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한 논문은 전혀 없었다.

필자는 古朝鮮과 三韓의 관계를 古朝鮮과 辰國의 관계, 辰國과 三韓의 관계를 통해서 밝히게 될 것인데, 먼저 辰國의 위치를 고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나.

2. 辰國의 위치

古朝鮮과 三韓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는 먼저 辰國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헌의 기록에 三韓은 옛 辰國과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달 뿐만 아니라 辰國은 古朝鮮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辰國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史記』「朝鮮列傳」에서 보인다. 그 기록에 따르면,

(衛滿의) 아들을 거쳐 손자 右渠 때에 이르러서는 …… 天子에게 入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眞番 열의 辰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謁見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³⁾

3) 『史記』卷115「朝鮮列傳」, “傳子至孫右渠, ……………, 又未嘗入見, 眞番旁辰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關不通.”

는 것이다. 이 기록은 衛滿朝鮮과 辰國 및 西漢의 관계를 전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위 『史記』의 인용문 가운데 辰國은 『史記』의 正義本이나 宋本에는 辰國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⁴⁾ 오늘날 통용되는 판본에는 ‘衆國’ 즉 여러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판본을 따른다면 위의 『史記』 기록은 辰國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史記』 「朝鮮列傳」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漢書』 「朝鮮傳」에는,

(衛滿의) 아들을 거쳐 손자 右渠 때에 이르러서는 …… 眞番·辰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謁見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⁵⁾

고 되어 있어 『史記』에는 ‘眞番 옆의 辰國’이 『漢書』에는 ‘眞番·辰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資治通鑑』 「漢紀」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위만의) 아들을 거쳐 손자 右渠 때에 이르러서는 …… 辰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謁見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⁶⁾

라고 하여 『史記』·『漢書』와는 달리 眞番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衛滿朝鮮의 右渠에 의하여 西漢과의 교류를 방해받은 나라가 辰國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위의 『漢書』와 『資治通鑑』의 기록으로 보아 서로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衛滿朝鮮 옆에 辰國이 있었고 그 辰國이 西漢과 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을 衛滿朝鮮의 右渠가 방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史記』의 기록에서 衆國이라고 되어 있는 현행 통용본보다는 ‘辰國’으로 되어 있는 正義本과 宋本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설령 『史記』의 기록을 현행 통용본에 따라 ‘衆國’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漢書』와 『資治通鑑』의 기록에서 辰國이 확인되었으므로 衛

4)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卷115 「朝鮮列傳」, 宏業書局 影印版, 民國 63(1974), p. 1200.

5) 『漢書』 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傳子至孫右渠, …… 又未嘗入見,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關不通.”

6) 『資治通鑑』 卷21 「漢紀」 13. “傳子至孫右渠, …… 又未嘗入見, 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關不通.”

滿朝鮮 옆의 來國 즉 여러 나라 가운데 辰國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辰國의 위치를 밝히기 전에 당시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史記』의 '眞番 옆의 辰國', 『漢書』의 '眞番·辰國', 『資治通鑑』의 '辰國'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기록들이 말하는 시기는 衛滿이 準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 西漢의 지원을 받아 그 영토를 확장한 훨씬 후로서 衛滿의 손자 右渠 때이다. 『史記』「朝鮮列傳」에 의하면,

孝惠·高后의 시대를 맞이하여 天下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遼東太守는 곧 (衛) 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국경 밖의 오랑캐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모든 오랑캐의 君長이 (중국에) 들어와 天子를 뵈고자 하면 막지 말도록 하였다. 天子도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이로써 (衛) 滿은 (西漢으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얻어 그 주변의 小邑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眞番과 臨屯도 와서 복속하여 그 (영토가)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⁷⁾

이와 같이 衛滿은 西漢의 外臣이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댓가로 西漢의 지원을 받아 영토 확장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이미 眞番 지역은 臨屯 지역과 함께 衛滿朝鮮에 복속되어 衛滿朝鮮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右渠시대에도 眞番 지역은 당연히 衛滿朝鮮의 영토였다. 이렇게 볼 때 『史記』의 眞番 옆의 辰國이 西漢과 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을 右渠가 가로막고 방해하였다는 기록은 辰國이 衛滿朝鮮의 영토인 眞番 지역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資治通鑑』은 眞番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衛滿朝鮮 영토의 일부인 眞番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辰國이 衛滿朝鮮 옆이나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 되어 그 사실을 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漢書』는 『史記』나 『資治通鑑』과는 달리 '眞番·辰國'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眞番과 辰國'으로 해석하여, 辰國뿐만 아니라 眞番이 西漢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을 衛滿朝鮮의 右渠가 가로막고 방해했던 것으

7) 『史記』卷115「朝鮮列傳」,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漢書』 「朝鮮傳」은 그 전체적인 기록이 『史記』 「朝鮮列傳」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史記』 「朝鮮列傳」은 물론이고 『漢書』 「朝鮮傳」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眞番은 이미 衛滿朝鮮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眞番이 西漢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을 右渠가 방해하였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漢書』의 「眞番・辰國」이라는 기록은 『史記』의 기록을 옮겨 적은 과정이나 그후 전해지는 과정에서 「眞番旁辰國」(眞番 옆의 辰國, 『史記』의 기록)의 표현 가운데 旁 자가 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史記』・『漢書』・『資治通鑑』의 기록을 통해 볼 때 辰國은 衛滿朝鮮 가까이에 있었고 衛滿朝鮮은 辰國과 西漢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衛滿朝鮮과 辰國의 지리적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기록이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의 韓傳에 주석으로 실린 『魏略』에 보인다. 그 기록을 보면,

일찍이 右渠가 격파되기 전에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하였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辰國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천여 호나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衛滿)朝鮮에 조공하는 藩國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⁸⁾

고 되어 있다. 위에 나오는 朝鮮相은 『史記』 「朝鮮列傳」에도 보이는 것으로⁹⁾ 衛滿朝鮮의 관직명인데, 그 관직에 있던 歷谿卿이 그의 간함을 衛滿朝鮮의 右渠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의 辰國으로 갔다고 했으니 辰國은 衛滿朝鮮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한국사 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朝鮮相 歷谿卿이 衛滿朝鮮으로부터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남쪽으로 간 것이 잘못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¹⁰⁾ 그 이유는 그간 한국사 학계에서는 衛滿朝鮮의 위치

8)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의 주석으로 실린 『魏略』.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藩不相往來."

9) 『史記』 「朝鮮列傳」에는 衛滿朝鮮의 관직으로 朝鮮相, 相, 尼谿相, 將軍, 裨王, 將士 등이 보인다.

10) 李丙傳,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1, pp. 238~40, 118 및 98 지도 참조.

千寬宇,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 『震檀學報』 41, p. 21.

를 한반도 북부로 보아 왔기 때문에 衛滿朝鮮의 동쪽에는 바다가 있을 辰國이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朝鮮相 歷谿卿은 남쪽의 三韓 지역으로 갔을 것으로 보고, 辰國은 三韓 전지역을 뜻하는 명칭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¹¹⁾와 三韓의 일부 지역에 그 전신의 사회로서 辰國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었다.¹²⁾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기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衛滿朝鮮의 위치를 전혀 고증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衛滿朝鮮의 위치나 영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문 한 권 제출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간 한국사 학계에서는 古朝鮮·衛滿朝鮮·漢四郡이 모두 수직선상의 선후관계로서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衛滿朝鮮은 古朝鮮의 뒤를 이은 세력이나 수직선상의 선후관계가 아니며 한반도 북부에 있지도 않았다.¹³⁾

앞의 『魏略』의 기록에 의하면 辰國과 衛滿朝鮮은 동서로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辰國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는 衛滿朝鮮의 위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衛滿朝鮮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지금의 遼西 지역이었으며 그 영토가 북경 근처의 灤河로부터 大凌河 유역이었음을 고증한 바 있다. 즉 商王室의 후예인 箕子 일족은 古朝鮮의 양해 아래 古朝鮮의 서부 변경인 灤河 동부유역에 최후로 망명해 있었는데¹⁴⁾ 箕子の 40여 세 후손인 準 때에 西漢으로부터 망명해 온 衛滿에게 그곳에서 정권을 빼앗겼으며 그후 衛滿은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그 영토가 大凌河에 이르렀고¹⁵⁾ 西漢 武帝가 衛滿朝鮮을 멸망시킨 후에는 灤河로부터 지금의 遼河에 이르는 지역에 漢四郡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었다.¹⁶⁾ 따라서 그 지역은

金貞培,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研究』 13, 1976, p. 14.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pp. 8~11.

11) 사외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 pp. 155~57.

12) 앞글,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 앞글,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앞 책, 『韓國古代史研究』.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衛滿朝鮮의 再認識」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6과 「韓國上古史 體系의 復元」 『東洋學』 17輯,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87을 참고하기 바람.

14) 尹乃鉉 「箕子新考」 앞 책 『韓國古代史新論』, pp. 223~33.

15) 앞 글 「衛滿朝鮮의 再認識」.

16) 尹乃鉉, 「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 앞 책 『韓國古代史新論』, pp. 307~19-340~41.

원래 古朝鮮의 서부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箕子·衛滿朝鮮·漢四郡은 古朝鮮의 서부 변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한국사의 주류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고증은 한국과 중국의 옛 문헌과 최근의 고고학 자료 및 인류학 이론 등을 통한 구체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통설을 견지하려는 일부 학자들이 있다.¹⁷⁾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따로 발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衛滿朝鮮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 주는 주요한 자료 몇 개만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衛滿朝鮮의 위치는 『史記』 「朝鮮列傳」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西漢 武帝는 衛滿朝鮮을 치기 위하여 육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는데 육군을 거느린 左將軍 荀彘의 진군로에 대해서 『史記』 「朝鮮列傳」에는,

左將軍 荀彘는 遼東에 출격하여 右渠를 토벌하였다.¹⁸⁾

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여 衛滿朝鮮은 遼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遼東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었던지를 확인하면 衛滿朝鮮의 위치를 알게 된다. 고대에는 지금의 溟河가 遼水였으며, 이에 따라 遼水의 동쪽을 뜻하는 遼東은 고대에는 지금의 遼東 지역과는 달리 지금의 遼西 지역인 溟河 동쪽을 지칭하였음을 필자는 밝힌 바 있다.¹⁹⁾ 이점은 『史記』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史記』 「秦始皇本紀」에는 秦帝國의 二世皇帝가 대신들과 함께 溟河 하류 동부 유역에 있는 碣石山을 다녀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서 碣石山 지역을 遼東이라고 부르고 있다.²⁰⁾ 동일한 문헌인 『史記』에서 遼東의 위치가 溟河 동부 유역으로 확인되므로 衛滿朝鮮이 그 지역에 있었을 것임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左將軍

17) 千寬字, 「古朝鮮에 대한 見解」 『한국일보』 1987년 4월 11일자 5~6면.

李基白, 「國史교과서 개편방향을 보고」 『東亞日報』 1987년 6월 8일자.

全榮來, 「回顧와 展望: 考古」 『韓國史研究會報』 51, 國史編纂委員會, 1985, pp. 95~96.

18)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19) 尹乃鉉, 「古朝鮮의 위치와 疆域」, 앞 책 『韓國古代史新論』, pp. 38~58.

20) 『史記』 卷6 「秦始皇本紀」 “二世皇帝” 元年條.

荀彘가 遼東에 출격했다”는 구절의 원문을 보면 “左將軍荀彘出遼東”이라 했으니, 遼東에 출격한 것이 아니라 遼東을 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衛滿朝鮮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史記』의 다른 문장의 예를 보더라도 ‘出遼東’은 ‘요동에 출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만,²¹⁾ 설명 ‘遼東을 나간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중국의 遼東은 溧河 하류로부터 그 동쪽에 있는 碣石山까지로서 전체 遼東의 서남부 일부²²⁾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荀彘軍이 중국의 遼東을 나와서 衛滿朝鮮을 쳤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한 곳은 넓은 의미의 遼東 지역이 되는 것이다.

衛滿朝鮮이 溧河 동부 유역에 있었음은 西漢 武帝가 파견한 해군의 항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史記』「朝鮮列傳」에 해군의 항로에 대해서,

樓船將軍 楊僕은 齊로부터 渤海를 항해하였다.²³⁾

고 기록되어 있다. 齊는 지금의 山東省이었고 渤海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山東省 북부에 있다.²⁴⁾ 그러므로 山東省을 출발 북쪽으로 항해하여 도달되는 곳은 碣石山이 있는 溧河 동부 유역이 된다. 西漢의 육군과 해군이 衛滿朝鮮을 치기 위하여 도달한 곳은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史記』의 저자인 司馬遷은 西漢 武帝가 衛滿朝鮮을 칠 당시에 생존해 있었던 西漢의 史官이라는 사실이나 위대한 역사가라는 그에 대한 후세의 평가 등을 생각해 볼 때 앞에 인용된 『史記』의 기록은 衛滿朝鮮의 위치를 밝혀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료인 것이다. 또한 『漢書』「地理志」와 『晉書』「地理志」에는 후에 樂浪郡의 朝鮮縣이 된 곳에 箕子 일족이 망명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²⁵⁾ 樂浪郡의 朝鮮縣은 지금의 溧河의 동부 지류인 靑龍河 유역이었음이 확인되었다.²⁶⁾ 이곳에서 衛滿은 箕子の 40여 세 후

21) 『史記』卷92「淮陰侯列傳」, “漢王舉兵東出陳倉.”; 卷93「韓彭盧黈列傳」, “上遂至平城。上出自登, 匈奴騎圍上. ……” 등이 그 예이다.

22) 앞 글, 「古朝鮮의 위치와 疆域」, pp. 47~54.

23) 『史記』卷115「朝鮮列傳」, “遺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24) 『戰國策』卷8「齊一」, “蘇秦爲趙合從, 說齊立王曰, 齊南有太山, 東有琅邪, 西有清河, 北有渤海, 此所謂四塞之國也.”

25) 『漢書』卷28下「地理志」下「樂浪郡」條에 실린 朝鮮縣에 대한 주석.

『晉書』卷14「地理志」上「平州」樂浪郡條의 朝鮮縣에 대한 주석.

26) 尹乃鉉, 「箕子新考」 앞 책 『韓國古代史新論』, pp. 231~33.

손인 準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衛滿朝鮮을 건립한 후 西漢에 그 外臣이 될 것을 약속하고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아 고조선 지역을 침벌하여 영토를 확장한 결과 그 영토가 溟河로부터 大凌河 유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²⁷⁾

그후 西漢 武帝가 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 지금의 遼河까지를 침략하고 그 지역에 漢四郡을 설치하였는데, 樂浪郡이 溟河의 동부 유역에 위치하여 가장 서쪽에 있었고, 玄菟郡은 遼河 서부 연안에 위치하여 가장 동쪽에 있었다.²⁸⁾ 箕子 일족의 망명으로부터 漢四郡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위치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이고 명쾌한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²⁹⁾ 여기서 중요한 것은 箕子 정권·衛滿朝鮮·漢四郡은 서로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準이 衛滿에게 정권을 빼앗긴 곳이 溟河 동부 유역이고 漢四郡이 溟河로부터 遼河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은 衛滿朝鮮의 위치가 溟河 동부 유역 즉 지금의 遼西 지역이었음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최근 李秉斗에 의해서 그간에 발표된 어떤 논문보다도 탁월한 漢四郡의 지리고증에 관한 연구 업적이 발표되었는데,³⁰⁾ 이 논문에 의하더라도 필자가 주장한 衛滿朝鮮이나 漢四郡의 위치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辰國의 위치를 확인할 차례가 되었다. 衛滿朝鮮의 위치가 지금의 遼西 지역이었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영토가 溟河로부터 大凌河까지였다면, 衛滿朝鮮의 朝鮮相 歷谿卿이 동쪽의 辰國으로 갔다고 『魏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辰國은 衛滿朝鮮의 동쪽인 지금의 遼河 유역으로부터 그 동부 지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衛滿朝鮮은 辰國과 西漢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史記』·『漢書』·『資治通鑑』에 기록된 衛滿朝鮮이 辰國과 西漢의 교류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내용이 그 지리적 관계와 일치됨을 확인하게 된다.

27) 앞 글, 「衛滿朝鮮의 再認識」 참조

28) 위 글, p. 269.

29) 앞 글, 「箕子新考」·「衛滿朝鮮의 再認識」·「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

30) 李秉斗, 「中國古代 郡縣 位置考——遼東·樂浪·玄菟郡에 대하여」,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辰國이 遼河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게 해 주는 근거가 다른 문헌들에서도 확인된다. 『淮南子』 「時則訓」에는,

碣石山으로부터 朝鮮을 지나 大人의 나라를 통과하면 동쪽의 해 뜨는 곳에 이른다.³¹⁾

라는 구절이 있다. 辰·臣 등은 한국 고대어에서 ‘大’ ‘크나’의 뜻을 지니므로 위 구절에 나오는 大人의 나라는 辰國이며,³²⁾ 『淮南子』는 西漢 武帝 때의 淮南王 劉安에 의하여 저술되었으므로 朝鮮은 衛滿朝鮮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의 樂河 하류 동부 유역에 있는 碣石山으로부터 衛滿朝鮮을 지나 동쪽으로 辰國을 통과한다는 표현은 앞에서 확인된 衛滿朝鮮과 辰國의 위치와 일치된다.

高句麗가 멸망된 후 그 후예들에 의해서 건국된 渤海는 遼河 동부와 沿海州 및 한반도 북부를 그 영토로 하고 있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渤海의 건국에 대해서 『舊唐書』 「渤海靺鞨傳」에는,

(大)祚榮은 굴세고 용감하였으며 군사를 쓰는 데 뛰어나니 靺鞨의 부리와 高句麗의 남은 후예들이 점차 그에게로 돌아왔다. 聖曆(서기 698~699)중에 自立하여 振國이 되었는데 사신을 보내어 突厥과 교봉하였다. 그 땅은 營州의 동쪽 2천 리로서 남쪽은 新羅와 서로 접하였다.³³⁾

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 「渤海傳」에는 大祚榮이 건국을 하고 스스로 震國王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³⁴⁾ 국호가 『舊唐書』에서 振國이라 한 것과는 달리 『新唐書』에는 振 자가 震으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진국’이 원래 漢字를 사용한 명칭이 아니었는데 중국인들이 그것을 漢字로 音寫한 과정에서 일어난 차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필자의 관

31) 『淮南子』 卷5 「時則訓」, “自碣石山過朝鮮, 貫大人之國, 東之日出之次.”

그 주석에 碣石山에 대해서 “陽石在遼西界海水西畔朝鮮樂浪之縣也”라고 하여 여기 나오는 碣石山이 樂河 하류 동부유역의 碣石山임을 밝히고 있다.

32) 앞 책, 『韓國古代史研究』, p. 240.

安在溟, 『三韓國과 그 法俗』 『韓國學研究叢書』 二, 成進文化社, 1974, p. 4.

33) 『舊唐書』 卷199 「北狄列傳」 「渤海靺鞨傳」, “(大)祚榮號勇善用兵, 靺鞨之衆及高麗餘衆, 稍稍歸之. 聖曆中, 自立爲振國王, 遣使通于突厥,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34) 『新唐書』 卷219 「北狄列傳」 「渤海傳」, “(大)祚榮即并比羽之衆,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심을 끈 것은 渤海가 스스로 불렀던 국명은 '진국'이었는데, 그 명칭은 물론 위치까지도 대체로 衛滿朝鮮시대의 辰國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아마도 渤海를 건국한 大祚榮은 같은 지역에 있었던 고대 辰國을 계승한다는 정신으로 동일한 국명을 사용했을 것이다.

『遼史』「地理地」'東京都' 辰州 奉國軍조를 보면,

辰州 奉國은 節度인데 본래 高(句)麗의 蓋牟城이다. 唐의 太宗이 李世勣과 합하여 蓋牟城을 攻破하였는데 바로 이곳이다. 渤海가 蓋州로 고쳤으며 다시 辰州로 고쳤는데 辰韓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³⁵⁾

는 기록이 보인다. 遼시대의 辰州는 지금의 蓋縣 지역으로서 遼東半島의 서북부 遼東灣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다. 또 『盛京通志』「建置沿革」조에는 蓋平縣·復州·寧海縣에 대해서,

蓋平縣은 周시대에는 朝鮮에 속해 있었는데 본래 辰韓의 땅으로서 秦시대에는 燕人 衛滿이 살았던 곳이다.

復州는 周시대의 朝鮮界로서 辰韓의 땅이었고 秦시대에도 같았다. 寧海縣은 周시대의 朝鮮界로서 辰韓의 땅이었고 秦시대에도 같았다.³⁶⁾

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淸시대의 蓋平縣·復州·寧海縣은 모두 원래 辰韓땅이었음을 전해 주고 있는데, 淸시대의 蓋平縣은 앞의 『遼史』「地理志」의 辰州와 같은 곳으로 지금의 蓋縣이며 寧海縣은 지금의 金縣이고 復州는 지금의 復縣 지역으로 蓋縣과 金縣의 중간지점이 되는데 모두가 遼東半島 지역이다.

위 『盛京通志』의 기록 가운데 秦시대에 燕人 衛滿이 蓋平縣에서 살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秦시대에는 衛滿이 朝鮮 지역으로 망명하기 전인데, 그가 거주하던 燕 지역은 지금의 河北省 중부지역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고찰된 바와 같이 衛滿이 망명 온 후 세운 衛滿朝鮮도 지금의 遼西 지방에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遼東 지역에 있었던 蓋平縣에 衛滿

35) 『遼史』卷38, 「地理志」二 '東京都'. "辰州, 奉國軍, 節度. 本高麗蓋牟城. 唐太宗會李世勣攻蓋牟城. 即此. 渤海改爲蓋州, 又改辰州, 以辰韓得名."

36) 『盛京通志』卷十「建置沿革」'蓋平縣'·'復州'·'寧海縣'. "蓋平縣: 周, 屬朝鮮本辰韓地. 秦, 燕人衛滿所據." "復州: 周, 朝鮮界辰韓地. 秦, 同." "寧海縣: 周, 朝鮮界辰韓地. 秦, 同."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遼史』와 『盛京通志』의 기록에 지금의 遼東 지역이 고대에 朝鮮에 속한 辰韓의 땅이었다거나 그 지역의 명칭이 辰韓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시사를 준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遼東半島 지역에 원래 北辰韓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었지만³⁷⁾ 遼東 지역에 辰國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辰韓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遼史』와 『盛京通志』에서 遼東 지역을 辰韓과 연결시켜 기록한 것은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에서,

辰韓은 옛날의 辰國이다.³⁸⁾

라고 한 것이라든가 『後漢書』 「東夷列傳」 「韓傳」에 馬韓·辰韓·弁辰이 모두 옛날의 辰國이었다³⁹⁾고 기록된 것에 따라 『遼史』와 『盛京通志』의 편찬자는 辰國과 辰韓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遼史』와 『盛京通志』에 遼東 지역이 본래 辰韓의 땅이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 지역에 辰國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辰國과 辰韓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로써 분명해진 것은 고대에 辰國은 지금의 遼河 유역으로부터 그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魏略』에 기록된 朝鮮相 歷谿卿이 衛滿朝鮮으로부터 동쪽의 辰國으로 갔다는 내용은 옳은 것이며, 그간 일부 학자들이 '동쪽'이라는 표현을 '남쪽'으로 바꾸어史料를 오색하게 해석했던 것이 잘못되었음도 알게 되었다.

3. 古朝鮮과 辰國의 관계

옛 문헌에서 辰國과 三韓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으나 古朝鮮과 辰國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古朝鮮의 국가구조와 사회상황 등을 이

37) 앞 글, 『三韓의 成立過程』, p. 12~13.

38)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辰韓者, 古之辰國也。」

39) 『後漢書』 卷 85 「東夷列傳」 「韓傳」, 「馬韓在西, ……辰韓在東, ……弁辰在辰韓之南, ……皆古之辰國也。」

해하게 되면 古朝鮮과 辰國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古朝鮮의 국가구조와 사회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그간 한국사 학계에서는 한국의 고대국가들을 부족국가로 보아 오다가 부족과 국가는 다른 시기의 사회단계를 말하는 학술용어이므로 부족국가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⁴⁰⁾ 근래에는 일부 학자들이 한국 고대국가를 城邑國家로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⁴¹⁾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초기국가들은 세계의 모든 다른 민족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통 都市國家라고 불리는 국가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城邑國家라는 것이다.⁴²⁾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에는 처음에 10여 개 내지 20 개의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스의 아테네는 물론 로마도 처음은 티베르강가에 자리잡은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출발했으며, 중국도 초기에는 도시국가 또는 邑制國家라고 부르는 작은 범위의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이다.⁴³⁾

그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보더라도 高句麗·百濟·新羅는 전국 초기에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고 작은 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古朝鮮도 이러한 상황과 같았을 것이며, 이것이 인류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에 알맞다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인류의 고대사회 발전 과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대국가들을 포함한 고대사회의 구조나 형태는 그것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지역과 한국이나 중국 지역 사이에는 국가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와 같이 자연환경이 고원이나 척박한 토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나 문화적 조

40) 金貞培, 「韓國古代國家起源論」『白山學報』14號, 1973, pp. 59~85.

41)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韓國學報』2, 1976, pp. 6~18.

李基白, 「古朝鮮의 國家形成」『韓國史市民講座』, 제 2집, 1988, p. 12~15.

42) 위 글, 「古朝鮮의 國家形成」, p. 13.

43) 위 글, p. 14.

44) 위 글, p. 13.

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자체내에서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고 이러한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집단이 거주하는 부락이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도시국가가 출현하였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비옥한 토질에서 농경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고 자체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나 문화적 조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가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소수집단(씨족이나 부족)이 모여서 거주하는 부락이 발달하게 된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부락들이 소멸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락들이 그대로 성장하면서 부락연맹체(또는 부락집합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를 형성하여 정치세력이 출현하게 되고, 이러한 부락연맹체들이 더욱 크게 통합되고 정치권력이 강화되어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⁴⁷⁾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고대국가 단계에 이르면 정치적·종교적 중심지는 大聚落으로서 도시가 출현하게 되지만,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에서와 같이 도시 그 자체가 국가는 아니며 많은 부락들이 점으로 연결되는 조직과 구조를 가진 국가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지역의 고대국가와 한국이나 중국 지역의 고대국가는 그 구조와 형태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도 초기에는 도시국가 또는 邑制國家였으므로 이러한 세계 보편적인 고대국가관이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학자들

45) 許倬雲, 「東周列國: 國家形態的發展」『中國史研究』1986年 4期, pp. 35~36.

Cho-yun Hsu, "Stepping into Civilization: the Case of 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A Conference on Early Civilization in Global Perspective*, 1980, p. 2.

46) 黃河 유역이나 만주, 한반도 등에서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부락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黃河의 지류인 渭河 유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부락 유적은 그 지역에 현존하는 부락의 수와 맞먹는 것이었다.

尹乃鉉, 『中國의 原始時代』, 檀大出版部, 1982, p. 185.

梁星彭, 「關中仰韶文化的幾個問題」『考古』1979年 3期, p. 260.

47) Kwang-chih Chang, *Shang Civiliz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 361.

張光直, 「從夏商周三代考古論三代關係與中國古代國家的形成」杜正勝編『中國上古史論文選集』上, 華世出版社, 民國 68(1979), pp. 311~21.

48) 王玉哲, 「殷商疆域史中的一個重要問題」, 『鄭州大學學報』, 1982.

『中國歷史學年鑑』, 人民出版社, 1983, pp. 10~11.

심재춘, 「중국 고대국가의 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은 한국 고대국가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